

가정상담

2003

11

통권 243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족정책-부부평등과 자녀·노인의 복지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별기획 | 여성음주

여성음주자의 특성과 음주의 원인

10 • 가정폭력행위자상담실

12 • 결혼아카데미를 마치고

13 • 칼럼 결혼과 인생(11)

13 •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15 • 인터넷 상담

16 • 상담소 소식

17 • 지부한마당

18 • 지부 소식

19 • 상담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법원 지정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 수탁기관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780-5688/9

<http://www.lawhome.or.kr>

상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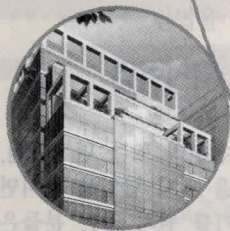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기관으로 가난하고
법률을 잘 모르는 분을 위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서
전문상담원과 변호사들이
상담, 화해·조정, 무료대서,
무료변론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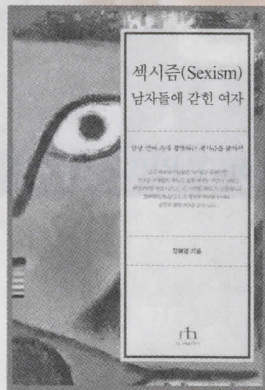
월~금 : 오전 10시 ~ 오후 5시

야간상담 :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섹시즘(Sexism) - 남자들에 갇힌 여자

정혜경 지음
휴머니스트, 2003년 발행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 모두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헌법 조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자는 국민이 아닌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조항 어디에도 남자만을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자는 따로 언급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남자이고 여자는 표준에 못 미치는 하위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섹시즘(Sexism) - 남자들에 갇힌 여자」는 남성지배사회에서 남성 언어 세계에 갇힌 여성의 모습을 그 쓰임새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언어는 원래 그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평등한 세계가 아니다. 언어는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권력집단이 힘없는 집단을 부정적으로 작동시키면서 억압하고 소외시킨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내재하고 있는 광범위한 성차별적 언어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더욱 남자답게 만들어 가고 있다. 지은이는 “법이나 제도가 드러내고 뻔뻔스럽게 여성을 적대시한다면, 말은 여성의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억압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세련된 통제수단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저항을 불러오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을 가져온다”고 언급하며 그 심각성을 제기한다.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 카뮈’에서 자유인은 멋진 말이다. 그러나 ‘자유부인’이란 단어는 춤바람이 난 무분별한 여자를 연상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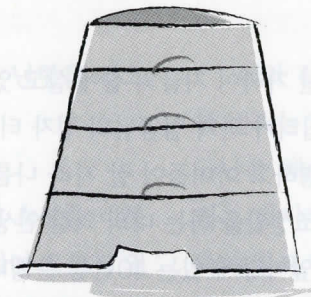
한다. 여성의 ‘과거’나 ‘경험’이라는 말은 여자의 성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고 ‘직업여성’은 직업을 가진 여성이 아니라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을 뜻한다. 일반단어에 여자를 붙이면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부정적이거나 성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같은 속성이 남자에게 적용되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이고 여성에게 적용되면 부정적으로 표현된다. 남자는 대화를 즐기고 여자는 수다스럽다. 남자는 논리적이고 여자는 따지기 좋아한다. 남자는 의지력이 있고 여자는 독하다 등.

성차별적인 언어는 선진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도 별 다르지 않다. 미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에서도 그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영어에서도 man in the street는 일반인을 지칭하지만 woman in the street는 거리의 여자 즉 창녀를 말한다. 또한 주지사인 governor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직업이지만 여성형인 governess는 가정교사 겸 보모로 권력과 거리가 멀다. 독일어의 der Sekretär는 공산당의 최고 권력자인 서기장 총서기이지만 여성명사 die Sekretärin은 여성들이 맡은 비서직을 가리킨다.

언어의 불평등은 사회적 권력관계에 의해 비롯되지만 불평등한 언어는 또한 억압적 질서를 영속화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남성 관점에서 이루어진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억압적인 제도를 없애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임을 지은이는 강조한다. 언어를 바꾸는 일은 정치나 경제를 바꾸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만 남성들의 언어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더 이상 일상의 성차별적 말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말고 언어적 평등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여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볼 때 여성과 남성을 바로 볼 수 있으며 남성의 언어에 갇혀 있던 우리의 의식이 자유로워질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김동자 도서실장

호주제 폐지 이제 국회통과만 남았다



지난 10월 28일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처음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무부 민법개정안은 현행 민법 4편 2장 ‘호주와 가족’ 부분의 삭제에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법적으로 필요한 영역마다 가족에 관한 규정은 살아 있고 - 예컨대 부양 상속 등 - 다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불필요한 추상적 개념인 호주제에 근거한 가족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었으나 호주제 폐지가 가족해체이며 상실이라는 논란이 일자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민법개정안이 모두 삭제하기로 했던 4편 2장 가운데 제779조 가족의 범위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개정하여 살리는 것으로 하여 일단락이 되었다.

분명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호주제 폐지 즉 현행 법에 있는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는 하는 것이 곧 가족의 해체나 상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953년 당시 여성계 대표들이 법전편찬위원회에 남녀평등을 넘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민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1958년 신민법이 공포되었고 그 후 군사쿠데타 당시 여성단체들이 강제로 해산 당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1973년 본격적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이 시작되어 마침내 지금 호주제 폐지라는 커다란 결실을 맺으려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우리 민법의 역사는 곧 가족법개정운동의 역사이고 이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호주제 폐지였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을 완전하게 실현하고 있는 민법을 갖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법적 토대 위에 관습과 제도, 의식의 개혁을 위해서도 오랜 세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과제가 호주제 폐지이고 그것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3년 10월 자원봉사자

현관 안내 해 주신

강신일, 강영봉, 고광래, 김한미, 엄안나, 오영순, 이상욱, 이수옥, 이옥순, 이현숙, 전덕열, 전원순, 함화영, 홍순호, 홍진범, 황온선 님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강재덕, 고옥주, 김남숙, 김인숙, 김정혜, 김희경, 노희자, 박선화, 백미도, 송미현, 안현숙, 유문숙, 한정희, 함영익, 황인경 님

교육원을 도와주신

박요순 님

도서실 작업을 도와주신

손상희, 김지희, 민경아, 김 영, 서경희, 이정연, 진선임, 조경희, 강미영, 유경나, 임은하, 김혜용, 이경실, 엄희정 님

주간상담을 해 주신

한수자 선생님, 이학기, 박순덕, 김병주, 홍명호, 권가선, 안미영, 이길연, 이석준, 이동형, 김경환, 이호창 변호사 님

야간상담을 해 주신

임주용, 이원목, 홍승기, 문영택, 박영식, 이남진, 배삼희, 이교림 변호사 님

후원

일반회원이 되신 분

강삼석, 이순자, 이춘자, 오현순, 이주자 님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남산교회, 여의도 동사무소, 김병주, 전정희(전주지부 소장), 오은경 님

도서후원금을 주신 분

이석희 18, 25기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2천원씩 또는 년 2만원, 평생회원은 3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은행 101-50446-244 가정법률상담소
우리은행 085-003398-01-006

연락처 780-5688 사무국